

# 『시경』·『서경』의 인격적 천관(天觀) 연구

이 대 근

(신부, 대전가톨릭대학교 동양철학 교수)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유교의 천에 대한 기본적 이해
- III. 『시경』·『서경』에 나타난 인격적 천관
  - 1. 최고신, 공경과 제사의 대상
  - 2. 조물주, 만물의 존재 근원
  - 3. 의지와 감정을 지닌 영명한 존재
- 4. 천명(天命)을 내리고 거두는 절대자
- 5. 상선벌악의 주재신(主宰神)
- 6. 기도·탄원·신앙의 대상
- 7. 도덕·가치의 근원자
- IV. 나가는 말

## 국문 초록

유교의 기본 경전인 오경(五經) 중에서도 『시경』·『서경』에는 천(天)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관념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시경』과 『서경』에 나타나는 천(天)의 인격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유교에서 절대자를 지칭하는 대표적 호칭은 ‘천’과 ‘상제’이다. 그래서 본고는 『시경』·『서경』에 나타난 천·상제의 성격을 일곱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천은 최고신이고, 공경과 제사의 대상이다. 유교 경전에서 천은 유일무이한 최고신이지만 또한 수많은 신들을 거느린 천상의 임금으로, 천에 대한 인간의 자세는 경천(敬天)·외천(畏天)·봉천(奉天)·사천(事天)·제천(祭天) 등으로 표현되었다. ② 천은 조물주이고, 만물의 존재 근원이다. 그래서

\* 본고는 2017년도 광주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논문임.

인간은 천이 부여한 법칙이나 질서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야만 된다고 믿었다. ③ 천은 의지와 감정을 지닌 영명한 존재이다. 천의 인격적 특성은 그의 호·분노·연민과 같은 감정의 표현과, 전지(全知)한 속성을 통해서 드러난다. ④ 천은 천명(天命)을 내리고 거두는 절대자이다. 나라의 건국, 군주의 임명, 도읍의 건설, 전쟁, 혼인, 수명, 길흉 모든 것이 천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⑤ 천은 상선별악의 주재신(主宰神)이다. 천·상제의 권능은 자연현상과 인생만사를 주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천은 인간의 선악에 따라 상벌을 내리는 존재로 신앙되었다. ⑥ 천은 기도·탄원·신앙의 대상이다. 『시경』 곳곳에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늘의 이름을 부르며 호소하거나, 슬픔을 토로하는 등의 탄원 시편들이 보인다. ⑦ 천은 도덕·가치의 근원자이다. 천은 또한 내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본성이 선한 근거는 바로 천으로부터 그것을 부여받은 데서 확보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천의 속성들은 모두 그 ‘인격성’을 드러낸다. 명말청초(明末清初)에 중국에 온 예수회 선교사들은 유교 경전을 깊이 연구하던 중에, 『시경』·『서경』 등의 경전에 나타나는 인격신 신앙에 주목하였다. 유교 경전의 천 사상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인식은 그들의 적응주의적 선교방법, 곧 보유론(補儒論)의 바탕이 되었다.

**주제어:** 『시경』(詩經), 『서경』(書經), 상제(上帝), 천(天), 보유론(補儒論)

## I. 들어가는 말

유교의 다섯 가지 기본 경전을 이른바 오경(五經)이라고 한다. 『시경』(詩經)·『서경』(書經)·『역경』(易經)·『예기』(禮記)·『춘추』(春秋)가 그것이다. 오경은 2000년 이상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일관되게 중국인의 정통적인 정신생활의 기반이요, 주축이 되어왔다. 오경은 신앙 서적은 아니지만, 예부터 내려온 문화적 전통과 성현(聖賢)의 가르침을 체계화한 책이기 때문에 ‘경전’(經典)으로 일컬어지고 신성시(神聖視)되었다. 이것은 한자(漢字) 문화권에 속했던 동아시아의 모든 지역에 해당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오경 중에서 『시경』과 『서경』에 나타나는 인격적(人

格的) 천관(天觀)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시경』은 주나라(西周) 초기인 B.C. 1100년경부터 춘추시대 중기 B.C. 600년경까지 약 500년 동안의 가사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詩歌集)이다. 본래는 3,000여 편이었다고 전하나 공자(孔子)에 의해 305편으로 간추려졌다고 전해진다.<sup>1)</sup>

『서경』은 중국 고대의 요순(堯舜)시대부터 주(周)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왕(聖王)·명군(名君)·현신(賢臣)이 남긴 어록이자 선언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공자가 고대의 기록 3,240편 가운데서 102편을 선별해 편찬했다고 한다. 『서경』은 『시경』과 함께 가장 먼저 경(經)으로 정착된 문헌으로 최고(最古)의 산문집이다.<sup>2)</sup>

오경 중에서도 『시경』·『서경』에는 천(天)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관념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공자는 만년에 제자들에게 육경(六經)을 가르쳤는데 그중에서도 『시경』을 첫머리로 삼았다. 또한 『서경』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 『시경』과 더불어 제자들의 교육에 핵심적인 교과 과정으로 삼았다.<sup>3)</sup>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 속에 천에 대한 언급은 표면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천은 그들의 정치·도덕·인성·수양에 관한 모든 사상체계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개념이다.

공자는 “서술하되 창작하지 않고, 옛것을 좋아하여 믿는다.”<sup>4)</sup>라고 자신의 학문태도를 표현하고 있듯이, 그는 자신의 사상의 바탕을 오

1) 『시경』은 크게 風·雅·頌으로 분류된다. 그중에서 風은 각국의 여러 지역에서 채집한 160편의 민요를 모은 것이다. 雅는 小雅 74편과 大雅 31편으로 구성되며 궁중에서 연주되는 곡조에 붙인 가사로 귀족풍을 띠고 있다. 頌은 周頌 31편, 魯頌 4편, 商頌 5편인데, 신과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악곡을 모은 것이다.

2) 『서경』은 『尙書』라고도 불리며, 전승에 따라 『今文尙書』와 『古文尙書』로 구분된다. 현재는 58편의 본문이 남아있는데, 虞書·夏書·商書·周書의 순서로 각 왕조시기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현존하는 『서경』 속에는 僞古文으로 판명된 것이 25편이 있는데, 문헌적 사실성을 중요시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가급적 今文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3) 유교사전편찬위원회 편, 『儒教大辭典』, 박영사, 1990, 650-655(書經), 817-820(詩經), 976-977(五經) 참조.

4) 『論語』, 『述而』, “子曰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

경의 가르침에 두고 있다. 따라서 그의 천관 역시 『시경』·『서경』의 인격적 천관을 계승하여 그 기초 위에 형성된 것이다. 이는 맹자나 이후 유학사상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시경』·『서경』의 인격적 천관을 검토하는 것은 유교 천(天) 사상의 근간(根幹) 내지 원형(原型)을 탐색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명말(明末) 청초(淸初)에 천주교가 중국에 전래되어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고대 유교 경전들, 특히 『시경』·『서경』에 나타나는 천의 관념이 천주교의 천주(天主)에 관한 교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유교의 천관과 그리스도교 천주관의 매개 요소가 되었던 천의 인격적 측면에 대해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현재까지 『시경』·『서경』 속에 나타나는 천관에 대해서만 천착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결과들은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서경』에 나타난 상제·천관에 대해 검토한 소논문이 하나 있을 뿐,<sup>5)</sup> 유가(儒家)의 천 사상을 다루는 중심 주제 속에서 대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또는 부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 II. 유교의 천에 대한 기본적 이해

중국 상고(上古) 시대에 있어서 중국인의 정신생활을 강하게 지배하던 자연숭배(自然崇拜), 곧 자연의 사물에 어떤 정령(精靈)이나 영력(靈力)이 존재한다고 믿어 이를 경배하던 소박한 사고방식이나 종교심리는 인지(人智)의 발달과 경험의 축적에 따라 낱날의 자연 현상을 통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우주 전체를 통할(統轄)하는 절대지고(絕對至高)의 권능을 가진 영적(靈的) 존재를 상정하기에 이르렀다.<sup>6)</sup>

5) 이경원, “『書經』에 나타난 上帝·天觀”, 『東洋哲學研究』 16, 1996, 189-210 참조.

이 자연계의 제신(諸神) 내지 우주 전체를 섭리 지배하는 신비스런 영적 존재자가 상제(上帝) 또는 천(天)이고, 그것을 숭배하는 신앙이 곧 경천(敬天) 사상이다.<sup>7)</sup> 여기서 천은 인간과 만물의 시원자(始源者)로서 절대적 권능을 인간과 자연에 행사할 수 있는 영력을 보유한 지고무상의 초경험적 실재<sup>8)</sup>로서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천사상이 고대 중국인들의 정치·도덕·종교·교육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시경』·『서경』·『역경』 등의 문헌과 금문(金文) 등의 기록을 통해 역력히 드러난다.<sup>9)</sup>

천 개념은 시대와 사조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게 되었는데, 풍우란은 경전 중에 보여지는 천의 의미를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sup>10)</sup> 첫째는 물질적인 의미의 천(物質之天)으로 땅(地)에 상대되는 천이요, 둘째는 주재자로서의 천(主宰之天)으로 인격적인 천제(天帝) 혹은 황천상제(皇天上帝)라고 하는 천이요, 셋째는 운명의 의미로서의 천(運命之天)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섭리를 가리킨다. 넷째는 자연계의 운행·법칙으로서의 천(自然之天)이고, 다섯째는 의리의 천(義理之天)으로 우주의 최고 원리이자 인간의 도덕법칙으로서의 천이다.

채인후는 천 개념을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했는데 첫째, 의지천(意志天, 인격신·주재자) 둘째, 덕화천(德化天, 天道·天理·天德) 셋째, 기화천(氣化天, 陰陽·自然의 생성변화 근거)이 그것이다.<sup>11)</sup>

주자(朱子) 역시 유가 경전 가운데의 ‘천’자에 대해서 첫째, 푸른 하늘로서의 자연천(自然天) 둘째, 주재자로서의 인격천(人格天) 셋째, 우주의 법칙으로서의 이법천(理法天)으로 종합한 바 있다.<sup>12)</sup>

노사광은 『시경』·『서경』 등 고대 경전의 천에 첫째, 형상천(形上

6) 狩野直喜, 『中國哲學史』, 東京: 岩波書店, 1974, 48-49 참조.

7) 高田眞治, 『支那思想の研究』, 東京: 春秋社, 1940, 14-18 참조.

8) 郭沫若, 『天の思想』, 東京: 岩波書店, 1935, 4 참조.

9) 出石誠彦, “天の思想”, 『世界精神史の諸問題(二)』, 東京: 理想社, 1941, 107 참조.

10) 馮友蘭, 『中國哲學史』, 臺北: 監燈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89, 55 참조.

11) 蔡仁厚, 『孔孟荀哲學』, 臺北: 學生書局, 1990, 236-240 참조.

12) 『朱子語類』, 1卷, 5項, “要人自看得分曉 也有說蒼蒼者 也有說主宰者 也有單訓理時.”

天, 형이상학적 원리·법칙으로서의 천, 天道) 둘째, 인격천(人格天, 의지를 지닌 인격신으로서의 천)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sup>13)</sup>

이와 같이 중국에서 궁극적 실재인 천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이해되었다. 아나자와 타쓰오(穴澤辰雄)는 이상 언급한 천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천의 원의(原義)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물질적(物質的)인 천과 주재적(主宰的)인 천의 두 가지임을 밝히고 있다.<sup>14)</sup> 하나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단순한 의미의 천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행위를 감시하고 상벌을 주는 절대적 인격으로서의 실재이다.<sup>15)</sup> 다산(茶山) 정약용 역시 하늘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여 이를 구분했는데, 하나는 ‘푸른 형태를 지닌 물리적 하늘’(蒼蒼有形之天)이고 또 하나는 ‘신명한 주재자로서의 하늘’(靈明主宰之天)이다.<sup>16)</sup> 여기서 후자가 신앙의 대상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하늘이고, 유교에서 숭경(崇敬)의 대상이 되는 실재이다. ‘신명한 주재자로서의 하늘’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면 ‘상제’(上帝)가 된다.

상제와 천은 유교에서 절대자를 지칭하는 대표적 호칭이다. 천은 유교 경전이나 유교 전통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절대자의 명칭이다. 그리고 그 천을 보다 인격적인 주재자로 부르는 관념이 상제이다. 상제와 천의 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한 이는 정약용이다. 그는 천과 상제를 동일한 존재의 다른 호칭으로 보았다. 상제가 본이름(正名)이라면, 천은 상제가 거하는 자리로서 상제를 가리키는 이름이 된다고 하였다.

하늘의 주재가 상제(上帝)가 되니, 이를 천(天)이라 말하는 것은 나랏님(國君)을 나라(國)라 일컬어 감히 직접 가리켜 말하지 못하는 뜻과 같다.<sup>17)</sup>

13) 勞思光, 『中國哲學史(古代篇)』, 정인재 역, 탐구당, 1997, 28-31, 41-44 참조.

14) 穴澤辰雄, 『中國古代思想論考』, 東京: 波古書院, 1982, 7 참조.

15) 宮瀨睦副, 『東洋哲學の根本思想』, 東京: 日黑書店, 1941, 41-49 참조.

16) 丁若鏞, 『與猶堂全書』, 中庸策, 1卷, 30a, “臣以爲高明配天之天 是蒼蒼有形之天, 維天於穆之天 是靈明主宰之天, 是故列序天地山林之廣大 而贊嘆功化於主宰之天.”

17) 丁若鏞, 『與猶堂全書』, 孟子要義, 2卷, 38b, “天之主宰爲上帝, 其謂之天者猶國君之稱國 不敢斥言之意也.”

천·상제를 한국어로 바꿔보면 ‘천’은 ‘하늘’, ‘상제’는 ‘하느님’에 해당한다.<sup>18)</sup> 하늘에 계신 절대자가 하느님이요, 그 하느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로 하늘이 쓰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하늘에 빈다’, ‘하늘이 굽어보신다’, ‘하늘도 무심하지지’,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늘이 맺어주셨다’, ‘하늘의 뜻에 맡긴다’ 등의 관용적 표현들은 저 물리적 창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창공의 주재자인 하느님을 가리키는 표현들이다. 상제·천개념의 연원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제 개념의 연원을 살펴보면, 상제는 갑골문(甲骨文)이나 경전 등에서 주재자를 일컫는 최초의 명칭이다. 은(殷)나라 사람들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를 믿고, 이를 제(帝) 또는 상제라고 불렀다. 갑골문에서 이 상제·제는 의지와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기쁨과 분노를 표현하며, 인간에게 복(福)과 화(禍)를 내려주는 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상제는 모든 자연현상 곧 바람, 비, 천둥, 벼락 등을 주재할 뿐 아니라, 인간 생활의 모든 것 곧 사냥, 정복, 생산, 건읍(建邑), 재해 등도 주재하는 존재로,<sup>19)</sup> 하늘에 위치해 있으면서 일체의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관장하는 절대적 권능을 가진 최고신이었다.<sup>20)</sup>

다음으로 천 개념의 연원을 살펴보면, 천은 상제 다음으로 등장하는 주재자의 명칭이다. 본래 천이란 글자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형문자인 ‘대’(大)자 위에 선 하나를 그은 것으로, 인간의 위를 덮고 있는 하늘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천은 단순히 머리

18) 유교 경전의 용어들을 번역할 때 천을 하늘로, 상제를 하느님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의미가 서로 상통하기 때문이다. 참조: 김학주 역저, 『詩經』, 명문당, 1997; 차상원 역저, 『書經』, 명문당, 1993.

19) 이와 관련된 갑골문 卜辭에 관해서는 전해중 외 8인, 『中國의 天下思想』, 민음사, 1988, 14-17 참조.

20) 참조: 장영백, 『古代 中國人の 天觀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4, 15-27; 유승중, 『先秦儒家의 天思想 연구: 孔子의 天觀을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6, 17-32; 김성기, 『中國 古代國家에 있어서 天과 人間과의 관계 및 그 구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4, 21-32.

위의 창공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고 무상(無上)하며 유일한 존재를 의미한다.

천은 전(顛)이라, 지극히 높은 것이고, ‘일’(一)과 ‘대’(大)의 의미를 합친 것이다. 지극히 높아 위가 없으니 이것은 두 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一)과 ‘대’(大)로 표기하는 것이다.<sup>21)</sup>

이 천은 본래 주(周)나라 때의 최고신으로, 주나라 사람들은 천을 인간이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천이 유덕(有德)한 자를 뽑아 왕이 되게 하고 그에게 백성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명을 내린다고 믿었다. 절대자를 초월적(超越的)이고 외재적(外在的)인 대상으로 파악했던 은인들과는 달리, 주인들은 절대자를 점차 인간의 본성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내재적(內在的)이고 도덕적(道德的)인 실재로 인식하여 갔다.<sup>22)</sup> 주(周)가 은(殷)을 정복하고 나서부터 상제와 천은 동일한 존재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결합되었고,<sup>23)</sup> 이후 유가 사상 속에서 황천상제(皇天上帝)나 호천상제(昊天上帝) 등의 호칭으로 불리워지며 숭경과 제의(祭儀)의 대상이 되었다.<sup>24)</sup>

21) 段玉裁, 『說文解字注』,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79, 1, “天 顛也 至高無上 從一大 至高無上是其大無有二也 故以一大.”

22) 참조: 유승중, 앞의 책, 32-46; 김성기, 앞의 책, 32-49.

23) 『書經』, 『周書』, 康誥, “聞于上帝 帝休 天乃大命文王”; 『書經』, 『周書』, 召誥, “皇天上帝 改厥元子…天既遐終大邦殷之命” 등의 구절에서 상제와 천이 동일 대상으로 함께 쓰여지고 있다.

24) 중국에서 국가 최고신인 상제에 대한 제례에서의 공식 호칭은 皇天上帝 등이 쓰였으나, 隋唐시기에 『周禮』에 근거하여 昊天上帝로 이름을 정하였고 이는 후대에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현존하는 북경의 天壇 祈年殿에는 여전히 호천상제의 신주나 위패를 보유하고 있다. 임계유 편, 『유교는 종교인가 1』, 금장태·안유경 역, 지식과 교양, 2011, 223-224 참조.

### Ⅲ. 『시경』·『서경』에 나타난 인격적 천관

고대 중국인에게 있어서 상제·천은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지고(至高)의 신으로서 군주를 포함해서 만인의 공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오늘날과 같은 체계와 형식을 갖춘 하나의 종교로서 승화한 단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신앙형태를 가지고 그 종교적 행위를 시행해 나온 것을 문헌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sup>25)</sup>

유가 경전에는 절대적 인격신을 지칭하는 명칭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sup>26)</sup> 『시경』에서는 천(天)·황천(皇天)·상천(上天)·호천(昊天)·창천(蒼天)·<sup>27)</sup>명소상제(明昭上帝)·황천상제(皇天上帝)·황의상제(皇矣上帝)·황황후제(皇皇后帝)·상제(上帝)·제(帝) 등이 나오고, 『서경』에서는 천(天)·황천(皇天)·상천(上天)·호천(昊天)·민천(旻天)·황상제(皇上帝)·상제(上帝)·제(帝) 등이 나타나고 있다.<sup>28)</sup> 이러한 표현은 천에 대한 인간의 숭경심을 표현한 말들이고 사람들이 천을 공경함으로써 천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sup>29)</sup> 그런데 이 모든 명칭들을 압축하면 천·상제로 정리될 수 있다. 『시경』·『서경』에 나타나는 천·상제의 성격을 일곱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5) 이경원, 앞의 책, 193 참조.

26) 『시경』에 天은 전부 164번 나오고, 帝는 42번 나온다. 이명숙, 『『詩經』에 나타난 福思想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84, 53 참조; 『서경』에는 上帝가 32번, 天이 249번(216번은 인격적 의미로 쓰임), 皇天이 14번, 上天이 4번, 旻天이 2번, 昊天이 1번, 神天이 1번 나온다. 이경원, 앞의 책, 192 참조.

27) 『爾雅』에서 천을 풀이하여 높여서 임금으로 쓰면 皇天, 원기가 광대하다는 뜻으로 쓰면 昊天, 사랑으로 덮고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으로 쓰면 旻天, 위로부터 아래까지 감시한다는 뜻으로 쓰면 上天이라 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다 천을 인격적 주재자로 이해하였음을 보여준다. 김영일, 『茶山의 上帝思想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0, 28 참조.

28) 안병철, 『先秦儒家의 民本政治思想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6, 33 참조.

29) 김승동, “先秦時代에 諸子들에 나타난 天 思想에 관한 연구”, 『코기토』 14, 1975, 435 참조.

## 1. 최고신, 공경과 제사의 대상

유교 경전에서 천·상제는 유일무이한 최고신(最高神)이지만 또한 백신(百神)을 거느린 천상의 임금으로 나타난다. 문헌을 보면 요(堯)임금과 순(舜)임금 때에 이미 경천(敬天)·제천(祭天)의 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에 희(羲)씨와 화(和)씨에게 명하시어 호천(昊天)을 공경하고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운행을 관찰하여 경건히 사람들에게 때를 알리도록 하였다.<sup>30)</sup>

상제께 제사지내고 천지사시(天地四時)에 제사지내며, 산천(山川)에 제사지내고 여러 군신(群神)들에게도 두루 제사지냈다.<sup>31)</sup>

이로써 중국 고대에는 경외로운 자연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숭배하였고 이에 따른 하나의 종교행위로써 여러 가지의 제사가 당시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지사시(天地四時)와 산천(山川)과 같은 자연현상을 궁극적으로 주재하는 상제에 대한 신앙이며 이는 모든 제사형태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신(百神)의 관념은 궁극적인 존재가 현현하는 양상의 일종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공경하는 대상은 모두 상제에게로 귀일(歸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고대 상제·천관의 특징이라 하겠다.<sup>32)</sup>

『시경』·『서경』에서는 이러한 상제·천에 대한 공경의 태도가 전

30) 『書經』, 『虞書』, 堯典, “乃命羲和 欽若昊天 歷象日月星辰 敬授人時.”

31) 『書經』, 『虞書』, 舜典, “肆類于上帝 禋于六宗 望于山川 徧于群神.”

32) 이경원, 앞의 책, 193-194 참조. 고대 갑골문에 의하면 은(殷)나라 사람들은 해·달·바람·구름·무지개·산천·나무 등 자연물을 신으로 공경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선조들이 사후 승천하여 신령한 존재로 하늘에 있다고 믿었다. 그렇지만 초월적 절대자인 상제(上帝)는 우주만물의 근원이요 주재자로서 자연신(自然神)과 선조신(先祖神)을 신하(臣下)로 좌우에 거느리고 있었다고 믿었다. 최기복, 『儒敎와 西學의 思想的 葛藤과 相和의 理解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9, 204 참조.

반에 걸쳐 나타나 있다.<sup>33)</sup>

삼가 공경하고 공경할지이다. 하늘은 참으로 밝게 굽어보고 계시니 천명(天命)을 받들기 쉽지 않으나, 하늘 높이 저 멀리만 계시다고 말하지 말라. 천사(天使)를 지상에 보내시어 날마다 이곳을 살피고 계신다.<sup>34)</sup>

천에 대한 인간의 자세는 우러러 존중하여 하늘을 공경하고(敬天), 하늘을 두려워하며(畏天), 하늘을 받들고(奉天), 하늘을 섬기며(事天), 하늘에 짝이 되고자 하고(配天),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것(祭天)이다.<sup>35)</sup> 외적인 행위 뿐 아니라 내적인 자세도 요청되었다.

『시경』은 상제 공경의 모범으로 문왕(文王)을 제시하고 있다.<sup>36)</sup>

문왕께서는 공경하고 삼가시어 밝게 상제를 섬기셨으니 많은 복을 누리셨다. 그분의 덕 헛되지 아니 하사 사방의 나라를 받으셨다.<sup>37)</sup>

궁궐에서는 화려하고 기뻐하셨고, 사당에서는 공경하고 엄숙하셨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상제의 신이 임한 듯하며, 싫어하심 없이 하늘의 뜻을 간직하셨다.<sup>38)</sup>

삼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밝게 상제를 섬기고(小心翼翼 昭事上帝) 언제 어디서나 상제의 현존을 의식하고 살았던 문왕의 마음가짐을 표현하고 있다. 이 문왕은 죽은 후에 하늘에 올라 상제의 곁에서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33) 『書經』, 『虞書』, 益稷, “帝庸作歌曰 勅天之命 惟時惟幾”; 『書經』, 『商書』, 盤庚上, “先王有服 恪謹天命”; 『書經』, 『周書』, 立政, “乃有室大競 顧俊尊上帝”; “灼見三有俊心 以敬事上帝” 참조.

34) 『詩經』, 『周頌』, 敬之, “敬之敬之 天維顯思, 命不易哉 無曰高高在上, 陟降厥土 日監在茲.”

35) 금장태, 『鬼神과 祭祀, 유교의 종교적 세계』, 제이앤씨, 2009, 29-30 참조.

36) 『詩經』, 『大雅』, 文王, “上天之載 無聲無臭, 儀刑文王 萬邦作孚.”

37) 『詩經』, 『大雅』, 大明, “維此文王 小心翼翼 昭事上帝 聿懷多福, 厥德不回 以受方國.”

38) 『詩經』, 『大雅』, 思齊, “黜黜在宮 肅肅在廟, 不顯亦臨 無射亦保.”

문왕이 위에 계시어 하늘에서 밝게 계시니,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지만 천명은 새롭다.  
 주나라가 드러나지 않을까. 상제의 명이 때에 맞지 않을까.  
 문왕께선 오르내리며 상제의 좌우에 계시다.<sup>39)</sup>

문왕뿐 아니라 덕이 높은 선왕과 현인들은 현세의 삶이 끝난 후에도 천상에 거주하면서, 상제의 명을 후손에게 전달하고 후손을 보호한다고 믿었다.<sup>40)</sup> 상제와 인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인 것이다.

## 2. 조물주, 만물의 존재 근원

‘무(無)로부터의 창조’나 창조주(創造主) 관념이 유교에서는 그리스도교처럼 뚜렷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교 역시 그 사상체계 안에서 천을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여기고 생명, 특히 인간 생명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다.<sup>41)</sup>

『주역』(周易)에서는 하늘의 존재에 대하여 규정하기를 “하늘은 신물(神物)을 낳았다.”<sup>42)</sup>라고 하고, 또 “하늘이 초매(草昧)를 지었다.”<sup>43)</sup>라고 하여 그 조물주(造物主)로서의 특성을 드러내었다. 『예기』(禮記)에서도 “만물은 하늘에 근본을 두고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뿌리를 받았으니, 이것이 상제를 배향(配享)하는 까닭이다. 교(郊)의 제사는 크게 보본반시(報本反始)하는 것이다.”<sup>44)</sup>라고 하여 천·상제를

39) 『詩經』, 『大雅』, 文王, “文王在上 於昭于天 周雖舊邦 其命維新, 有周不顯 帝命不時, 文王陟降 在帝左右.”

40) 참조: 배옥영, 『周代의 上帝意識과 天命思想』,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3, 18-19; 이명숙, 앞의 책, 57-62.

41) 유교에서의 천 역시 창조주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천이 만물을 만들어낸 경위나 그 방법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만물 생성의 근원자로서의 속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성배, 『유교와 그리스도교』, 분도출판사, 2001, 199 참조.

42) 『周易』, 『繫辭 上』, “天生神物.”

43) 『周易』, 『屯 象』, “天造草昧.”

44) 『禮記』, 『郊特牲』, “萬物本乎天 人本乎祖 此所以配上帝也, 郊之祭也 大報本反始也.”

인간과 만물의 존재 근원으로 말하고 있다. 『시경』과 『서경』에서 역시 천은 높은 산을 만든 자<sup>45)</sup>인 동시에, 인간 생명의 근원이다.<sup>46)</sup>

하늘이 아래 백성을 덮어 낳으시고, 그 살아감이 조화롭도록 도와 주셨는데, 나는 그 뒤편한 도리(彝)의 순서를 모릅니다.<sup>47)</sup>

하늘이 뭇 백성을 낳으시니,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의 법칙이 있네.  
사람들이 마음에 뒤편한 성품(彝)을 가지고 있으니,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도다.<sup>48)</sup>

하늘이 백성을 낳은 그때부터 모든 만물에는 그 부여하는 바의 하늘의 법칙이 있었으며, 그러한 법칙처럼 인간에게도 또한 근본적인 도리를 주었으니 그것이 양심의 아름다운 덕(懿德)이라는 것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사람의 생명이 천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보았기에 천이 부여한 법칙이나 질서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야만 된다고 믿었다.<sup>49)</sup> 사람은 모두 천으로부터 유래했다고 하는 신앙, 인간의 조상은 천이라고 믿는 신앙이 곧 중국 고대 민족 신앙이었다.<sup>50)</sup> 『서경』의 “천지는 만물의 부모이며, 사람은 만물의 영장(靈長)이다”<sup>51)</sup>라는 내용도 그러한 유교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천을 어떤 실재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천인관계의 양상이 달라지고, 한 학파의 사상의 전모가 달라지게 된다. 이를테면 도가(道家)의 경우는 상제·천 등의 인격적 실재보다 천도(天道)·천리(天理)·도(道) 등을 우주 만유의 근본원리로 파악하고 있다.<sup>52)</sup> 그러나 유가

45) 『詩經』, 『周頌』, 天作, “天作高山.”

46) 『詩經』, 『小雅』, 小弁, “天之生我 我辰安在.”

47) 『書經』, 『周書』, 洪範, “惟天陰鷲下民 相協厥居 我不知其彝倫攸叙”; 武王이 箕子에게 묻는 말이다. 馬融은 이에 대해 “陰은 覆이다. 鷲은 升이다. 升은 舉와 비슷하다. 舉는 生과 비슷하다”(陰覆也 鷲升也 升猶居也 居猶生也)고 注하고 있다. 가노나오키, 『中國哲學史』, 오이환 역, 을유문화사, 1995, 65 참조.

48) 『詩經』, 『大雅』, 烝民, “天生烝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懿德.”

49) 안병주, “산업사회와 유교적 인간관”, 『인문과학』 5, 1976, 28 참조.

50) 안병주, 『儒敎의 民本思想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6, 9 참조.

51) 『書經』, 『周書』, 泰誓 上, “惟天地萬物父母 惟人萬物之靈.”

(儒家)의 경우는 천·상제가 궁극적 실재요, 우주만물과 그 운행법칙은 모두 그로부터 나온 피조물일 뿐이다(天生烝民 有物有則).<sup>53)</sup>

학자들 중에는 유교의 천·상제는 우주의 근원자나 창조주가 아니고, 이미 창조되어 있는 세계를 유지·관리하는 주재자(主宰者)의 성격만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sup>54)</sup> 그러나 비록 언급이 많지는 않지만, 『시경』·『서경』의 “하늘이 아래 백성을 낳았다”와 “하늘이 높은 산을 만들었다” 등의 표현들은 하늘이 세계를 만든 자이고 유지하는 자임을 나타낸 것이다.

갑골문 속의 ‘제’ 혹은 ‘상제’가 관할하던 범위가 인류 사회와 자연계 여러 방면을 포괄하던 것에서 보면, 중국사상사에서 상제는 최초로 등장하는 지고무상(至高無上)한 우주의 주재자였다. 그 뒤에 『서경』과 『시경』의 ‘천’ 혹은 ‘천제’(天帝)가 출현하였고, 그리고 그 위에 일부 형용사를 더한 ‘황천’(皇天)·‘호천’(昊天) 등의 말도 대체로 서로 같은 방식으로 같은 관념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대만 학자 부패영(傅佩榮)의 결론에 따르면, 후세에 ‘제’(帝)자를 대신하여 유행하던 ‘천’(天)자가 천제 관념을 나타낼 때에 통치자·창조자·대행자·계시자·심판자 등의 의미를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춘추시기 이전에 지고신이던 천제와 사람의 각종 관계를 총괄한 뒤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시경』과 『서경』의 천제는 인류의 창조자이고, 한 분의 덕성(德性)과 인애(仁愛)를 가지고 있고, 사람과 교감하며, 권능을 가진 공적인 의미의 신령(神靈)이다.<sup>55)</sup>

52) 『老子』, 4장, “道沖而用之或不盈 淵兮似萬物之宗, 挫其銳 解其紛 和其光 同其塵 湛兮似或存, 吾不知誰之子 象帝之先.”

53) 후대에 董仲舒는 “道の 큰 근원이 태이다(道之大原出乎天)”라고 하여 道보다 天을 더 근원적인 것임을 밝혔다. 후에 道敎와 佛敎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송대 성리학에 의해 변질되었지만, 이것이 유가의 전통적 견해이다.

54) 참조: 윤사순, “유교전통에서 보는 그리스도교”, 『종교신학연구』 6, 1993, 53-54; 금장태, “유교의 天·上帝觀”, 『신관의 토착화』, 사목연구총서 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89, 102-103; 勞思光, 앞의 책, 42.

55) 李杜, 『中西 哲學思想 속의 天道와 上帝』,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91, 27.

바꾸어 말하면, 상고시대 중국인의 초월의식이 형성된 것은 일종의 상당히 완비된 ‘천제’ 관념이었다는 것이다.<sup>56)</sup> 천·상제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조물주’라는 표현 속에 이미 만물의 존재 근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 3. 의지와 감정을 지닌 영명한 존재

앞서 천의 의미를 다섯 가지로 분류했던 풍우란은 『시경』·『서경』·『좌전』(左傳)·『국어』(國語)에서 말하는 천이란 물질천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주재천을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sup>57)</sup> 노사광도 『시경』·『서경』에서 말하는 천은 형상천(形上天)과 인격천(人格天)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인격천에 대한 신앙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sup>58)</sup>

실제로 『시경』·『서경』에서 말하는 천·상제는 아래 세상을 밝게 굽어보고 있는 영명(靈明)한 인격신(人格神)으로 나타난다.<sup>59)</sup>

위대하신 상제께서 아래를 밝게 굽어보사  
사방을 관찰하시어 백성이 편안하기를 구하신다.<sup>60)</sup>

천은 항상 인류를 감찰(監察)하여 그 행실의 선악을 본다. 여기서 감찰한다는 것은 막연히 상상(想像)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천은

56) 임계유 편, 앞의 책, 427-428 참조.

57) 馮友蘭, 앞의 책, 55 참조.

58) 勞思光, 앞의 책, 28-44 참조.

59) 上帝監民(『書經』, 『周書』, 呂刑), 天監下民(『書經』, 『商書』, 高宗彤日), 天監在下(『詩經』, 『大雅』, 文王之什), 天監有周(『詩經』, 『大雅』, 烝民) 등의 표현이 詩·書의 도처에서 나타난다. 虛靈·靈覺·靈明 등의 개념은 佛家·道家·성리학 등에서 통용되었고, 마테오 리치도 『天主實義』에서 사용하였는 바, 이를 상제의 속성에 명확하게 연결시킨 이는 정약용으로 그는 상제를 ‘靈明主宰之天’으로 표현하였다. 靈明이란 가장 밝은 앎, 곧 全知를 뜻하는 것이다. 최동희, 『西學에 대한 韓國實學의 反應』,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163-164 참조.

60) 『詩經』, 『大雅』, 皇矣, “上帝臨下 監觀四方 求民之莫.”

능히 들으며<sup>61)</sup> 능히 보며 능히 물으며<sup>62)</sup> 능히 말하며<sup>63)</sup> 능히 생각한  
다<sup>64)</sup>는 뜻이다.

천은 또한 호의·분노·연민과 같은 감정을 지닌 인격적 존재이다.  
『서경』에 “오호라! 하늘도 사방 천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셨으니,  
왕께서는 천명을 돌아보시어 힘써 일하도록 하며 삼가 덕행을 빨  
리 행하도록 하십시오.”<sup>65)</sup> 그리고 “하늘이 백성을 공홀히 여기셔서  
백성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하늘이 반드시 따라서 행하니”<sup>66)</sup>라고 한  
내용에서는 백성을 향한 천의 연민의 감정을 찾아볼 수 있다.

“상제가 이에 진노하셨다”<sup>67)</sup>와 “천이 지금 어려움 내리시고 계시  
니 것처럼 즐기고 있지만 마라. 천이 바야흐로 성내고 계시니 그처  
럼 떠들기만 하지 마라. 천이 지금 노하고 계시니 굽실거리며 아침  
만 하지 마라”<sup>68)</sup>와 같은 구절에서는 천의 분노를 엿볼 수 있다.

최고신으로서의 천의 위력과 전지(全知)한 속성은 다음과 같은  
시구들에서 나타난다.

하늘의 노여움을 두려워하며 멋대로 행락을 일삼지 말지니.

하늘의 변이(變異)에도 공손하며 멋대로 설치며 치닫지 말지니.

하늘의 굽어보심은 밝고도 밝아 그대의 출입을 소상히 살피며,

하늘의 굽어보심은 해처럼 밝아 그대의 노니는 모습 환히 지켜 보시네.<sup>69)</sup>

하나라와 상나라가 정사를 어지럽혔기에,

다시 온 천하를 두루 살피사 궁리하고 헤아리셨네.

61) 『書經』, 『虞書』, 皋陶謨, “天聰明 自我民聰明”; 『書經』, 『周書』, 康誥, “其尙顯聞于天.”, “聞于上帝 帝休”; 『書經』, 『周書』, 泰誓 中,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62) 『書經』, 『周書』, 呂刑, “皇帝清問下民.”

63) 『詩經』, 『大雅』, 皇矣, “帝謂文王 予懷明德”; “帝謂文王 詢爾仇方.”

64) 『詩經』, 『大雅』, 皇矣, “帝度其心.”

65) 『書經』, 『周書』, 召誥, “嗚呼, 天亦哀于四方民 其眷命用懋, 王其疾敬德.”

66) 『書經』, 『周書』, 泰誓 上, “天矜予民 民之所欲 天必從之.”

67) 『書經』, 『周書』, 洪範, “帝乃震怒”; 『書經』, 『周書』, 泰誓 上, “皇天震怒.”

68) 『詩經』, 『大雅』, 板, “天之方難 無然憲憲, 天之方蹶 無然泄泄…天之方懣 無爲夸毗.”

69) 『詩經』, 『大雅』, 板, “敬天之怒 無敢戲豫, 敬天之渝 無敢馳驅, 昊天曰明 及爾出王, 昊天曰旦 及爾游衍.”

상제께서 노하심은 정사를 그르침을 미워하신 때문이네.  
이에 서쪽을 돌아보시고 여기에 살 곳을 마련하셨네.<sup>70)</sup>

앞의 시는 천은 인간이 그 위엄 앞에 굴복하고 언제나 경외심을 갖고 우러러 보아야 할 지고자(至高者)로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살펴보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뒤의 시는 천이 하(夏)와 상(商, 殷) 두 나라를 대신해서 서쪽의 주(周)에 천명을 내린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천의 영명한 지력(智力)과 의지, 감정 등 인격적 속성이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하광호는 『多元化的 上帝觀』이란 저서에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시경』·『서경』 등 경전에 나오는 천의 인격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교는 천(天)·지(地)·군(君)·친(親)·사(師)를 높이 받들었는데, 여기서의 '천'은 자연의 천이 아니고, “하늘이 백성을 도와 군주를 세우고 스승을 세웠다”(天佑下民 作之君 作之師)는 천이요, “하늘의 질서에 법칙이 있다”(天敍有典), “하늘의 질서에 예가 있다”(天秩有禮), “하늘이 덕 있는 자에게 명하셨다”(天命有德), “하늘이 죄 있는 자를 벌하셨다”(天土有罪)는 천이요, “하늘이 아래에 있는 백성을 굽어 보시니 천명이 이미 (주나라에) 모였다”(天監在下 有命既集)는 천이니, 만물의 주재자이고 의지가 있는 신이다.<sup>71)</sup>

#### 4. 천명(天命)을 내리고 거두는 절대자

지상신인 천이 인간에게 내리는 명령, 곧 의지의 표현이 천명이다. 그런데 유가 경전에서 천은 스스로가 직접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천의(天意)의 대행자 곧 군왕(君王, 天子)을 통하여 다스린다.<sup>72)</sup> 중개자로서의 군왕의 역할은 천의 명(命)을 받아

70) 『詩經』, 『大雅』, 皇矣, “維此二國 其政不獲, 維彼四國 爰究爰度, 上帝者之 憎其式廓, 乃眷西顧 此維與宅.”

71) 참조: 何光滙, 『多元化的 上帝觀』,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1, 5; 임계유 편, 앞의 책, 247.

백성들 안에서 실현하는 것과 백성을 대신하여 천에게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기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군왕이 천명을 받아 책임(天役)을 맡고 나서도 덕(德)을 잃으면, 천은 명을 바꾸어 덕이 있는 다른 인물에게 다시 명을 내리게 된다.

전에 상제께서 문왕의 품덕(品德)을 여러 차례 관찰하시고 천명을 그의 몸에 내리셨다.<sup>73)</sup>

천은 문왕에게 은(殷)을 쳐 멸망케 하라 명하시니, 천명을 받들고 그 나라 백성을 복종케 하였다.<sup>74)</sup>

경전에는 요임금과 순임금, 문왕과 무왕 등 제왕들이 모두 천명을 받아 대임(大任)을 맡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탕 임금이 하나라를 멸망시킨 것이나,<sup>75)</sup>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킨 것도 다 천명에 의한 것이다.<sup>76)</sup> 천명은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에 내려 백성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경』은 곳곳에서 천명은 항구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고(天命靡常),<sup>77)</sup> 덕을 닦지 않으면 그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천명의 소재를 민의(民意)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왕은 공경으로 처소를 삼으실지니 덕(德)을 공경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라와 은나라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천명을 받고서 더 계속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덕을 공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찍이 그들의 명(命)을 상실한 것입니다.<sup>78)</sup>

72) 이광률 편, 『유가철학의 본질』, 중문출판사, 1998, 12 참조.

73) 『書經』, 『周書』, 君奭, “在昔 上帝劓申勸寧王之德, 其集大命于厥躬.”

74) 『書經』, 『周書』, 康誥, “天乃大命文王 殪戎殷, 誕受厥命 超厥邦厥民 惟時敘.”

75) 『書經』, 『商書』, 湯誓, “王曰, 格 爾衆庶 悉聽朕言, 非台小子 敢行稱亂, 有夏多罪 天命殛之.” 참조.

76) 『書經』, 『周書』, 泰書 上, “商罪貫盈 天命誅之, 予弗順天 厥罪惟鈞, 予小子 夙夜 祗懼 受命文考 類于上帝, 宜于冢土以爾有衆 底天之罰” 참조.

77) 『詩經』, 『大雅』, 文王, “假哉天命 有商孫子, 商之孫子 其麗不億, 上帝既命 侯于周服, 侯服于周 天命靡常” 참조.

천은 백성을 가엽게 여기고, 백성이 바라는 바를 천은 반드시 따른다.<sup>79)</sup>

천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보며, 천은 우리 백성이 듣는 것으로부터 듣는다.<sup>80)</sup>

이렇게 천명은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고 군주의 임명에도 해당되지만, 나라의 건국,<sup>81)</sup> 도읍의 건설,<sup>82)</sup> 전쟁, 혼인 등 모든 일이 천명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경』 「대아」(大雅)의 ‘대명’(大明)을 보면 자애로운 부모처럼 왕의 배필을 마련하고, 도읍을 정해주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며 격려하는 천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 중 한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자.

천이 세상 일을 두루 밝히사 천명이 여기서 이루어졌나니

문왕이 즉위하신 첫해에

천은 후비(后妃)될 이를 흡수(洽水) 양지 위수(渭水) 기슭에 미리 점지해 놓으시다.<sup>83)</sup>

이 내용은 천이 미리 문왕의 후비를 점지해 놓았다는 말이다. 배필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다. 국가적인 일뿐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생명 역시 천이 부여한 것이니,<sup>84)</sup> 그 수명(壽命)과 길흉(吉凶)<sup>85)</sup>도 천명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천이 아래의 백성들을 살피실 때에는 그들의 울바름을 주로하여 수명을 내리심

78) 『書經』, 『周書』, 召誥, “王所作所 不可不敬德, 我不敢知日 有夏 亦不可不監于有殷 我不敢知日 有夏服天命 惟有歷年, 我不敢知日 不其延 惟不敬厥德 乃早墜厥命.”

79) 『書經』, 『周書』, 泰書 上, “天矜子民 民之所欲 天必從之.”

80) 『書經』, 『周書』, 泰書 中,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81) 참조: 『詩經』, 『商頌』, 玄鳥, “降而生商” “帝立子生商”; 『詩經』, 『大雅』, 大明, “有命自天 命此文王.”

82) 『詩經』, 『大雅』, 皇矣, “上帝者之 憎其式廓 乃眷西顧 此維與宅.” 참조.

83) 『詩經』, 『大雅』, 大明, “天監在下 有命既集, 文王初載 天作之合 在洽之陽 在渭之涘, 文王嘉止 大邦有子.”

84) 『詩經』, 『大雅』, 蕩, “天生烝民, 其命匪誑” 참조.

85) 참조: 『書經』, 『商書』, 盤庚 上, “罔知天之斷命”; 『書經』, 『商書』, 西伯戡黎, “嗚呼 我生不有命 在天”; 『書經』, 『周書』, 召誥, “天其命哲 命吉凶 命歷年.”

에 긴 것이 있고 길지 않은 것이 있으니, 천이 사람들을 일찍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명(命)을 끊는 것입니다.<sup>86)</sup>

곧 요(夭)·수(壽)와 장(長)·단(短)은 천이 맡고 있지만, 인간의 행실 여부에 따라 천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천·상제는 한 나라의 운명과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전능적 통치자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 5. 상선벌악의 주재신(主宰神)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전에서의 천·상제는 ‘영명한 인격신으로 아래 세상을 비추고 살피는 존재’<sup>87)</sup>이다. 그의 권능은 자연현상과 인생만사의 주재자로 나타난다. 우선 사시(四時)와 일월성신(日月星辰), 풍우상설(風雨霜雪)과 같은 자연현상은 모두 궁극적 존재로서의 천의 현현양식이요 그의 권능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다.

가을에 곡식이 풍성히 익었으나 아직 거둬들이지 않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크게 벼락과 번개가 치며 바람이 불어 곡식이 모두 넘어지고 큰 나무가 뽑히어지니 나라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임금은 대관(大官)들과 더불어 모두 예복을 갖추고서 쇠로 봉해 놓은 글을 열어 보니…왕이 상제께 제사를 드리니 천은 곧 비를 내렸고 바람이 반대로 부니 곡식이 모두 일어났다. 그러자 그 해에는 크게 풍년이 들었다.<sup>88)</sup>

이렇게 상제는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존재이기에, 예기치 않은 자연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는 상제·천께서 인간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으로 알고 인간은 그 뜻을 삼가 공경히 받들어 다시 안정

86) 『書經』, 『周書』, 召誥, “惟天監下民 典厥義 降年有永有不永, 非天夭民 民中絕命.”

87) 『詩經』, 『小雅』, 小明, “明明上天 照臨下土” 참조.

88) 『書經』, 『周書』, 金縢, “秋大熟未獲, 天大雷電以風 禾盡偃 大木斯拔, 邦人大恐 王與大夫盡弁 以啓金縢之書…王出郊 天乃雨 反風 禾則盡起, 二公命邦人 凡大木所偃 盡起而築之 歲則大熟.”

을 되찾게 된다고 믿는 것이다.<sup>89)</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천은 인간의 선악에 따라 상벌을 시행하는 주재자로 신앙되었다. 『서경』에서는 이러한 상벌의 원칙에 대해 “선한 이를 복주고 음란한 이에게 화를 내린다”(福善禍淫),<sup>90)</sup> “선하면 온갖 상서로움을 내리고 불선하면 온갖 재앙을 내린다”(作善降祥 不善降殃),<sup>91)</sup> “덕 있는 이에게 상을 내리고 죄 있는 이를 토벌한다”<sup>92)</sup>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천이 인격적인 존재이므로 자기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자기의 뜻에 거슬리는 자에게는 화를 그 대가로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sup>93)</sup>

우선 상제가 상(賞)과 복(福)을 내리는 내용을 살펴보자.

너에게 온갖 복을 내리되, 약속한 시기와 같고 법도도 같게 하리라.  
이미 가지런히 하고 이미 서둘러 이미 바르게 하고 이미 삼갔으니,  
길이 너희에게 지극함을 내리되, 만 번 억 번을 내리리라.<sup>94)</sup>

『시경』에서의 ‘복록유강’(福祿攸降),<sup>95)</sup> ‘천피이록’(天彼爾祿),<sup>96)</sup> ‘강지백복’(降之百福),<sup>97)</sup> ‘수천백복’(受天百福),<sup>98)</sup> ‘강복’(降福)<sup>99)</sup>과 같은 용어들을 통해서 볼 때 복은 근본적으로 하늘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게 해 준다.

하늘이 당신을 보우하시어 더 없이 견고케 해 주시었네.

89) 이경원, 앞의 책, 200-201 참조.

90) 『書經』, 『商書』, 湯誥, “天道 福善禍淫 降災于夏 以影厥罪.”

91) 『書經』, 『商書』, 伊訓, “惟上帝不常 作善降之百祥 作不善降之百殃.”

92) 『書經』, 『虞書』, 皋陶謨, “天命有德五服五章哉. 天討有罪五刑五用哉.”

93) 최도희, “荀子의 人間觀”, 『인문과학논총』 27, 1995, 125 참조.

94) 『詩經』, 『小雅』, 楚茨, “卜爾百福 如幾如式, 既齊既稷 既匡既敕, 永錫爾極 時萬時億.”

95) 『詩經』, 『大雅』, 鳧鷖, “福祿攸降” 참조.

96) 『詩經』, 『大雅』, 既醉, “天彼爾祿” 참조.

97) 『詩經』, 『魯頌』, 閟宮, “降之百福” 참조.

98) 『詩經』, 『小雅』, 天保, “受天百福” 참조.

99) 『詩經』, 『周頌』, 執競, “不顯成康 上帝是皇, 自彼成康 奄有四方 斤斤其命, 鐘鼓喤喤 磬筦將將 降福穰穰, 降福簡簡 威儀反反 既醉既飽 福祿來反” 참조.

하늘이 당신을 더욱 풍요케 하사 어느 복인들 아니 내리실까.  
 당신을 더욱 이롭게 하여 가득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네.  
 하늘이 당신을 보우하사 익은 곡식을 풍성케 하시니  
 합당치 않음이란 하나도 없고 하늘로부터 복을 받으시네.  
 하늘이 큰 복을 내려 주시느라 많은 나날들이 오히려 모자라네.<sup>100)</sup>

이 시는 많은 나날들이 모자랄 만큼 넘치고 풍부하게 복을 내려 주는 하늘의 자애로운 면을 묘사하고 있다. 『시경』의 다른 곳에서도 “밝으신 상제께서 지금까지 풍년을 내리셨다”<sup>101)</sup>라고 하여 농사의 수확을 하늘의 은덕(恩德)으로 돌리고 있다. 하늘은 인간사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을 보호해 주는 최고의 보우자(保佑者)다. “상제에 의지하고 명령을 순종하면 재해(災害)도 없고 온갖 복을 받는다.”<sup>102)</sup> 그러나 하늘은 인간 세상에 복만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천의 명령을 어기면 노하여 화(禍)와 벌(罰)도 함께 내리는 존재로 드러난다.

천은 은나라에 벌을 내리어 은나라를 아끼지 않았으니 너무 즐겼기 때문이며 천이 잔인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불러들였기 때문이다.<sup>103)</sup>

그는 음란하고 방자하여, 하늘의 밝은 도(道)와 백성들을 공경해야 하거늘 거들떠보지도 않았소. 이에 상제께서는 보호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이러한 큰 멸망을 내리셨던 것이요, 하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은 그가 덕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요.<sup>104)</sup>

이처럼 『서경』과 『시경』에는 상제·천의 뜻에 위배될 때는 언제든지 벌을 내려서 그 위엄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하늘이 해충을 해치듯 죄고(罪罟)를 내리셔서 내란(內亂)이 일어났다”<sup>105)</sup>는 탄식처

100) 『詩經』, 「小雅」, 天保, “天保定爾 亦孔之固, 俾爾單厚 何福不除, 俾爾多益 以莫不庶, 天保定爾 俾爾戩穀, 罄無不宜 受天百祿, 降爾遐福 維日不足.”

101) 『詩經』, 「周頌」, 臣工, “明昭上帝 迄用康年.”

102) 『詩經』, 「周頌」, 閟宮, “上帝是依 無災無害.”

103) 『書經』, 「周書」, 酒誥, “故天降喪于殷 罔愛于殷 惟逸, 天非虐 惟民自速辜.”

104) 『書經』, 「周書」, 多士, “誕淫厥泆 罔顧于天顯民祗, 惟時上帝不保 降若茲大喪, 惟天不畀 不明厥德.”

럼 하늘은 때로는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가난과 어려움과 질병을 주기도 한다.<sup>106)</sup>

그러나 이와 같이 ‘백성이 겪는 요사스러운 재난의 원인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 있다’(下民之孽 匪降自天 噂沓背憎 職競由人)는 성찰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곧 화와 벌의 원인이 위정자가 현신(賢臣)을 멀리하고 소인에게 빠져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었음에서,<sup>107)</sup> 그리고 왕의 옆에서 바르게 정치를 간하지 못하고 혼란을 조장한 신하에게서 비롯된다고 이해하고 있다.<sup>108)</sup>

## 6. 기도·탄원·신앙의 대상

영명한 능력으로 아래 세상을 굽어보고 보살피는 하늘은 일찍부터 인간의 기도와 탄원,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순(舜)임금의 일화를 보면 순의 아버지, 계모와 그녀의 아들은 매우 악한 사람이었으나, 순은 지극한 효성으로 그들을 감화시켜 개심(改心)하게 하였다. 『서경』을 보면 그의 지극한 효성과 경천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순이 일찍이 역산(歷山)에서 밭을 갈 적에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겨) 날마다 어진 하늘을 향하여 울며 호소하였다.<sup>109)</sup>

순의 부모에 대한 효심이 천에 대한 천효(天孝)로 확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순의 효심은 천심을 감동케 하여(至誠感天) 그가 요(堯)임금으로부터 제위를 선양받게 된 한 요인이 된다.<sup>110)</sup>

105) 『詩經』, 「大雅」, 召旻, “天降罪罟 蝥賊內訌.”

106) 『書經』, 「周書」, 顧命, “今天降疾 殆弗興弗悟” 참조.

107) 『詩經』, 「小雅」, 小旻, “旻天疾威 敷于下土 謀猶回遹 何日斯沮, 謀臧不從 不臧覆用 我是謀猶 亦孔之邛, 滄滄訛訛 亦孔之哀, 謀之其臧 則具是違 謀之不臧 則具是依 我是謀猶 伊于胡底” 참조.

108) 『詩經』, 「小雅」, 十月之交, “黽勉從事 不敢告勞, 無罪無辜 讒口器器, 下民之孽 匪降自天, 噂沓背憎 職競由人” 참조.

109) 『書經』, 「虞書」, 大禹謨, “帝初于歷山 往于田 泣號于旻天.”

110) 서우열, 『孔子와 孟子의 天思想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8,

『시경』에는 무왕이 천명을 받아 절대 우세한 은나라의 주(紂)임금 군대와 결전하기에 이르렀을 때 훈시하는 내용이 나온다.

은상(殷商)의 군대는 숲처럼 무수히 모여있는데,  
 무왕께서 목야(牧野)에서 군사들에게 이렇게 맹서하셨다.  
 “지금 우리는 일어날 때다.  
 상제께서 그대들과 함께 하고 계시니 두 마음 갖지 말고 나아가자.”<sup>111)</sup>

막대한 적의 군세에 동요할 수 있는 군사들에게 무왕은 “상제께서 임해 계시니 두 마음 갖지 말라”(上帝臨女 無貳爾心). 곧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독려하고 있다.<sup>112)</sup> 상제·천은 그들에게 관념적인 대상이 아니라 실재 임재하여 그들을 돕는 살아있는 인격신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시경』에는 억울하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늘의 이름을 부르며 호소하거나,<sup>113)</sup> 어머니와 하늘을 동시에 부르며 곤경에서 구해줄 것을 탄원하거나,<sup>114)</sup> 의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호소하거나,<sup>115)</sup> 전쟁에 끌려가 부모의 안부를 걱정하며 기도를 바치거나,<sup>116)</sup> 망국의 슬픔을 하늘에 토로하는<sup>117)</sup> 등 천·상제에 바치는 탄원시편(歎願詩篇)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편들에는 천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마음을 돌이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을 지닌 존재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천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니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초월

14-16 참조.

- 111) 『詩經』, 『大雅』, 大明, “殷商之旅 其會如林 矢于牧野 維予侯興 上帝臨女 無貳爾心.”  
 112) 『詩經』, 『魯頌』, 閟宮에도 “두 마음 갖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상제가 그대 위에 임하셨으니”(無貳無虞 上帝臨女)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다.  
 113) 『詩經』, 『小雅』, 巷伯, “蒼天蒼天 視彼驕人 矜此勞人” 참조.  
 114) 『詩經』, 『鄘風』, 柏舟, “母也天只 不諒人只” 참조.  
 115) 『詩經』, 『秦風』, 黃鳥, “彼蒼者天 殲我良人 如可贖兮 人百其身” 참조.  
 116) 『詩經』, 『唐風』, 鴛羽, “父母何怙 悠悠蒼天 曷其有所, 父母何食 悠悠蒼天 曷其有極, 父母何嘗 悠悠蒼天 曷其有常” 참조.  
 117) 『詩經』, 『王風』, 黍離, “悠悠蒼天 此何人哉” 참조.

적 존재이지만,<sup>118)</sup> 이렇게 유교 전통에서는 인간이 천과 만나는 체험에는 하늘과 말을 주고 받는 태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 자세는 천의 명령을 공순히 받들고 따르는 순천(順天)의 태도와 인간이 자신의 사정과 요구를 천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행위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인간이 천을 신앙적 대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종교적 표현이다.<sup>119)</sup>

한편 『시경』 「소아」(小雅)의 ‘정월’(正月), ‘우무정’(雨無正), ‘소민’(小旻)과 같은 시들에서 하늘은 원망과 탄식의 대상이 된다. 이를테면 이러한 시편들이다.

넓고 넓은 저 하늘조차 이제는 그 은혜를 아끼심인가?  
 죽음과 기근을 내리시어 천하를 휩쓸어버리시네.  
 가혹한 하늘 재앙을 내리시니 불쌍한 이 백성 돌보려고 생각지도 않으신가?  
 죄 있는 저 우리들 내버려두고 도리어 그 허물을 숨기어 주며  
 이 죄 없는 사람들도 다 함께 괴로움을 당하네.<sup>120)</sup>

꿈임없이 마음 상하여 병나 가슴 아픈데  
 사방을 밝게 비춘다는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조금도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sup>121)</sup>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날 사랑치는 않네.  
 이처럼 큰 재앙만 거듭 내리시니 불안해서 어찌 살까.<sup>122)</sup>

이러한 ‘변풍변아’(變風變雅)라 불리는 시들은 서주(西周) 후기의 유명한 폭군 여왕(厲王)과 유왕(幽王) 때에 민중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스런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sup>123)</sup> 비록 하늘에 대한 원망과

118) 『詩經』, 「大雅」, 文王, “上天之載 無聲無臭” 참조.

119) 금장태, 앞의 책, 28-29 참조.

120) 『詩經』, 「小雅」, 雨無正, “浩浩昊天 不駿其德 降喪饑饉 斬伐四國, 旻天疾威 弗慮弗圖 舍彼有罪 既伏其辜 若此無罪 淪胥以鋪.”

121) 『詩經』, 「大雅」, 桑柔, “不殄心憂 倉兄填兮, 俾彼昊天 寧不我矜.”

122) 『詩經』, 「大雅」, 瞻卬, “瞻卬昊天 則不我惠, 孔填不寧 降此大厲 邦靡有定.”

123) 劉冬穎, 『詩經 ‘變風變雅’ 考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참조.

불신의 표현처럼 보일지라도, 이러한 시편들 역시 진솔하게 자신들의 심경을 토로하는 탄원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하늘을 최후의 의지처 내지 호소처로 여기는 믿음이 그 바탕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 7. 도덕·가치의 근원자

유교에서의 천은 초월적이고 주재적인 존재인 동시에 내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이다. 상제·천은 고대 민족의 일상생활과 정치현실에 올바른 가치기준을 제공해 주고 모든 윤리적 행위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가치의 근원자가 된다. 인간의 본래적 심성이 선한 근거는 바로 상제·천으로부터 그것을 부여받은 데서 확보될 수 있다.<sup>124)</sup>

『시경』을 보면 천은 만물을 생(生)하며, 천하의 사사물물(事事物物)에는 모두 당연한 도리와 법칙이 갖추어져 있다.

하늘이 못백성을 낳으시니,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의 법칙이 있네. 사람들이 마음에 몇몇한 성품(彝)을 가지고 있으니,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도다.<sup>125)</sup>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의 법칙이 있다’(有物有則)에서의 ‘칙’(則)은 천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는 천리(天理)·천도(天道)·도리(道理)로서, 사물에는 자연법칙이 되고 사람에는 도덕법칙이 된다. 인간이 갖추고 있는 영원불변한 것(彝)은 다름아닌 인간의 존재근거인 도덕 본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덕’(懿德)은 곧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好善惡惡) 덕성을 나타낸다.<sup>126)</sup>

『서경』에서도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다.

124) 이경원, 앞의 책, 198-199 참조.

125) 『詩經』, 『大雅』, 烝民, “天生烝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懿德.”

126) 송영건, 『孟子的 天人關係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2, 25 참조.

위대하신 상제께서 아래 백성들에게 충(衷: 올바른 마음)을 내려주시어, 언제나 변치 않는 성품(恒性)을 지니게 되었다.<sup>127)</sup>

하늘은 우리 백성에게 도리(彝)를 준다.<sup>128)</sup>

‘충’(衷)이란 인간존재의 중심이며, 참 마음, 성심(誠心), 진심(眞心)이다. 이(彝)는 항상 변치 않는 도(道, 法度), 사람이 지녀야 할 도리이다.<sup>129)</sup> 천은 인류를 위하여 하나의 도덕법칙을 세웠는데 그 이름을 충(衷) 내지 이(彝)<sup>130)</sup>라 하여 항상됨을 말하기도 하고, 극(極)<sup>131)</sup>이라 하여 중정(中正)함을 말하기도 하고, 칙(則)<sup>132)</sup> 또는 서(敍) 또는 질(秩)<sup>133)</sup>이라 하여 조리(條理)를 말하기도 한다.<sup>134)</sup> 여러 가지 용어로 지칭되지만, 그것들은 한결같이 인간 안에 부여된 도덕적 본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것은 상제의 성품이기도 하다.

인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상제의 의지는 인간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의 윤리적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덕’(德)이다. 『시경』 「대아」(大雅)의 ‘황의’(皇矣)에는 상제가 명한 덕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왕계(王季)에 대하여 상제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덕음(德音)을 청정하게 하시며 그 덕을 능히 밝아지게 하셨다.  
능히 밝아지고 능히 식별하게 되어 어른 노릇 임금 노릇할 자질을 지니었으니,  
이 큰 나라의 임금이 되어 능히 하늘에 순종하고 따르셨네.

127) 『書經』, 「商書」, 湯誥, “惟皇上帝 降衷于下, 若有恒性.”

128) 『書經』, 「周書」, 康誥, “天惟與我民彝.”

129) 민중서림편집국,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1999, 713, 1858 참조.

130) 『書經』, 「周書」, 洪範, “惟天陰鷲下民 相協厥居, 我不知其彝倫攸敘…天乃錫禹洪範九疇 彝倫攸敘.” 참조.

131) 上同, “皇極 皇建其有極, 欽時五福 用敷錫厥庶民, 惟時厥庶民 于汝極 錫汝保極” 참조.

132) 참조: 『詩經』, 「大雅」, 烝民, “天生烝民 有物有則.”; 『詩經』, 「大雅」, 皇矣, “不識不知 順帝之則.”

133) 『書經』, 「虞書」, 皋陶謨, “天敘有典…天秩有禮” 참조.

134) 조준하, “東洋傳統思想의 宗教性 탐구: 先秦儒家의 天觀을 중심으로”, 『同大論叢』 18, 1988, 132 참조.

문왕에 이르러 그 덕에 흠 없으시니

이미 받으신 상제의 복이 자손들에게까지 뻗어가게 되었다.<sup>135)</sup>

먼저 상제는 왕계의 마음을 헤아리셨고, 그 덕을 가르치는 선한 음성을 경청하게 하였으며, 이를 백성에게 베풀게 하여 그 덕에 화(化)하도록 하였던 것이다.<sup>136)</sup> 이와 같은 상제의 덕에 따라서 왕계는 그 덕이 능히 밝아져서 시비(是非)를 분별할 수 있었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137)</sup> 왕계는 그러한 상제의 뜻에 따라 능히 덕을 밝히고 능히 선악을 구별하였던 것이니, 이와 같은 사실은 왕계는 스스로 상제가 부여한 덕을 자신의 명덕(明德)으로 밝혔음을 의미한다.

『대학』(大學)에서는 ‘명명덕’(明明德), ‘친민’(親民), ‘지어지선’(至於至善)을 삼강령(三綱領)으로 규정하였고, 『중용』(中庸)에서는 성(性)은 덕으로서 이 덕은 하늘의 명령을 인간이 수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천명과 인간의 관계가 설정될 수 있는 사상적 연원은 실로 상제가 왕계에게 명하여 준 맥맥한 덕음(德音)에 근본하고 있는 것이다.<sup>138)</sup> 이 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방법은 후일 유가사상이 계속 밝혀나가게 될 것이다.

“황천은 사사로운 친함이 없으니(皇天無親) 오직 덕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민심(民心)은 일정함이 없어 은혜롭게 하는 이를 그리워한다”<sup>139)</sup>고 했듯이, 천은 덕 있는 이를 도와주며 덕 있는 이에게 복을 내린다. 그러나 반대로 덕을 잃으면 이에 따라 벌을 내리게 된다.

135) 『詩經』, 『大雅』, 皇矣, “維此王季 帝度其心 貺其德音 其德克明, 克明克類 克長克君 王此大邦 克順克比, 比于文王 其德靡悔 既受帝祉 施于孫子.” 王季는 文王의 선조로서 周나라 건국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다.

136) 孔穎達, 『毛詩正義』, 臺北: 中華書局, 1982, 570. “安精其德教之善音 施之於人則皆應和其德” 참조.

137) 朱熹, 『詩集傳』, 명문당, 1978, 396. “克明能察是非也 克類能分善惡也” 참조.

138) 배옥영, 앞의 책, 36-37 참조.

139) 『書經』, 『周書』, 蔡仲之命, “皇天無親 惟德是輔 民心無常 惟惠之懷”; 『書經』, 『周書』, 太甲 上, “惟天無親 克敬有親.”

그대들의 조상을 생각지 말고 스스로의 덕을 닦아라.  
언제까지도 상제의 명에 따라 위배하지 말고,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여라.  
은나라가 백성을 잃지 않았을 적에는 상제의 뜻에 합치했었다.  
마땅히 은나라를 거울 삼아라. 천명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sup>140)</sup>

천이 위엄을 내리심은 우리 백성들이 크게 어지러워져 덕을 잃었기 때문이요.<sup>141)</sup>

천의 덕을 따를 수 있고 스스로 큰 명을 따르게 되면 밑에선 이에 따라 누림을 받게 될 것이다.<sup>142)</sup>

곧 상제·천으로부터의 부여받은 ‘덕’을 잘 보존하고 길러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상실하느냐가 상벌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시경』·『서경』에서 말하는 ‘천명’이 상제·천의 명령으로서 절대권위를 가지고 있으되 이러한 상제·천의 명령이 인간의 심성 속에 ‘덕’이라는 형태로 내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곧 상제·천의 명령은 ‘강충’(降衷)으로서 인간의 심성 속에 본래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며, 이렇게 부여된 성품을 지니고 상제·천을 대할 때 초월적 상제·천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sup>143)</sup>

#### IV. 나가는 말

중국사상사에서 궁극적 실재를 지칭하는 대표적 개념은 ‘천’으로, 이 천과 인간의 관계(天人關係)를 규명하는 것은 중국사상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본고에서는 『시경』·『서경』에 나타나는 천

140) 『詩經』, 『大雅』, 文王, “無念爾祖 聿脩厥德, 永言配命 自求多福, 殷之未喪師 克配上帝, 宜鑑于殷 駿命不易.”

141) 『書經』, 『周書』, 酒誥, “天降威 我民用大亂喪德.”

142) 『書經』, 『周書』, 呂刑, “惟克天德 自作元命 配享在下.”

143) 이경원, 앞의 책, 204-205.

관을 검토해 본 결과, 유교 경전에서의 천은 지고무상의 최고신, 만물의 존재 근원, 영명한 인격신, 천명의 주관자, 상선벌악의 주재신, 기도와 탄원의 대상, 도덕·가치의 근원자 등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속성들은 모두 천의 ‘인격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관념들이다.

유교의 천이 지닌 기본 성격을 금장태는 조화(造化)·주재(主宰)·영명(靈明)의 세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sup>144)</sup> 그런데 유교 천 사상의 이런 핵심 내용은 이미 앞서 살펴본 『시경』·『서경』의 천 관념 속에서 이미 원초적 형태로 풍부히 형성되어 진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구의 철학과 신학에서 궁극적 실재는 ‘신’(神)이다. 그리스도교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느님은 유일신·인격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인격신은 신과 인간의 상호성·상통성이 전제된 개념이다. 이는 신이 인간과 교감한다는, 인간의 요청을 듣고 그에 응답한다는 기본적인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

신이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은 인식을 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신은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함에 있어서 자유롭고, 신은 그 자신 외의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 성격들 중의 어느 하나라도 결여한 신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조건들은 최소한의 조건들이라고 생각된다.<sup>145)</sup>

이러한 신의 인격적 성격은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sup>146)</sup>적 사고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신의 인격적 구조(神格)는 인간의 인격적 구조와 통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선다. 신은 인간의 인격에

144) 참조: 조신평, 『儒敎의 天觀에 나타난 중국인의 종교심성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 석사학위논문,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4, 6-7; 김재영, 『儒敎와 『天主實義』에 나타난 天觀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4, 18-19.

145) 마이클 피터슨, 『종교철학』, 하종호 역, 이대출판부, 1994, 95.

146) 神人同型論은 신을 사람(anthropos) 모습(morphe)의 확대판으로 여기는 사상이다. 인간적 인격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우상’인 것이다.

감응하는 인격적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의 인격성은 인간의 사유를 넘어서면서도 인간에게 비인격적이고 사물적인 ‘그것’(It)이 아닌 ‘그분’으로 불릴만한 인격적 구조를 갖고 있다.<sup>147)</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교 경전에 나타나는 천의 인격적 성격은 범신론(汎神論)이나 이신론(理神論)과는 다른 유신론(有神論)적인 특성으로 정초되고 있고, 이는 도가(道家)·불가(佛家)에서의 궁극적 실재와는 판연(判然)히 다른 모습이다. 유가 천관의 원초적 형태 속에는 이미 그리스도교의 신관과 매개될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되어 있다.

명말(明末) 청초(淸初)에 중국에 온 예수회 선교사들은 유가 경전을 깊이 연구하고 천주교 사상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월의식이 강하고 상고적(尙古的)인 중국인들에게 천주교가 이질적인 서양 종교가 아니라 선유(先儒)의 사상과 상통하는 종교이며 더 나아가 유교의 부족함을 보완시킬 수 있는 사상임을 설득시키려 하였다.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초기 예수회원들의 한문(漢文) 실력과 경전 통달은 반대파 유학자들도 인정하고 놀랄 정도였다.<sup>148)</sup> 그들이 유교 경전을 연구하던 중에 경이로움을 느끼며 주목했던 것은 『시경』·『서경』 등의 경전에 나타나는 고대 중국인들의 역력한 인격신 신앙의 실상(實狀)이었다.

마테오 리치는 유럽에 유가 사상을 소개하는 글 속에서 중국 고대사상에 대한 깊은 찬탄과 호의를 표하고 있다. 그중에 이런 내용도 보인다.

중국의 역사가 시작된 가장 초기의 기록에서부터 그들은 ‘황천상제’(皇天上帝), 또는 천지를 지배하는 권능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운 유일한 최고의 존재만을 인식하고 경배해 왔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sup>149)</sup>

147) 이현수, “인격신”, 『한국가톨릭대사전』 9,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7110-7111 참조.

148) 최기복, 앞의 책, 12-13 참조.

149) M. Ricci, *China in the 16th century: The Journal of Matthew Ricci*, 1953, 93을 김

이러한 유가 경전의 천 사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마테오 리치의 적응주의적 태도, 나아가 보유론(補儒論)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저서 『천주실의』(天主實義)에서 천주의 존재 근거와 속성을 고대 유가 경전의 구절들을 인용해 논증하려고 시도하였다.<sup>150)</sup>

『시경』·『서경』의 인격적 천관에 대한 본고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유교의 천 사상의 원형적 형태를 경전에서 탐색한 것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교의 하느님(天主)을 중국에 소개할 수 있었던 보유론의 원초적 토대를 고찰해 본 것이다.

\* 투 고 일: 2016. 8. 10  
수 정 일: 2017. 2. 27

심 사 일: 2017. 2. 20  
계재확정일: 2017. 3. 8

---

기협, 『마테오 리치의 中國觀과 補儒易佛論』,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3, 86에서 재인용.

150) 利瑪竇, 『天主實義』, 上卷, 第二篇, 20項 참조.

## 참 고 문 헌

### 1. 經典 및 주요 原典

『老子』

『四書』(『論語』 『大學』 『孟子』 『中庸』)

『五經』(『書經』 『詩經』 『禮記』 『周易』 『春秋』)

『朱子語類』

段玉裁, 『說文解字注』,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79.

利瑪竇, 『天主實義』

朱熹, 『詩集傳』, 명문당, 1978.

丁若鏞, 『與猶堂全書』

清 玩元 刻, 『十三經注疏』, 北京: 中華書局, 1987.

### 2. 단행본

高田眞治, 『支那思想の研究』, 東京: 春秋社, 1940.

孔穎達, 『毛詩正義』, 臺北: 中華書局, 1982.

郭沫若, 『天の思想』, 東京: 岩波書店, 1935.

宮瀨睦副, 『東洋哲學の根本思想』, 東京: 目黒書店, 1941.

勞思光, 『中國哲學史(古代篇)』, 정인재 역, 탐구당, 1997.

狩野直喜, 『中國哲學史』, 東京: 岩波書店, 1974.

劉冬穎, 『詩經‘變風變雅’考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李杜, 『中西 哲學思想 속의 天道와 上帝』,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91.

蔡仁厚, 『孔孟荀哲學』, 臺北: 學生書局, 1990.

馮友蘭, 『中國哲學史』, 臺北: 監燈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89.

何光滬, 『多元化的 上帝觀』,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1.

穴澤辰雄, 『中國古代思想論考』, 東京: 波古書院, 1982.

가노 나오키, 『中國哲學史』, 오이환 역, 을유문화사, 1995.

김장태, 『鬼神과 祭祀, 유교의 종교적 세계』, 제이앤씨, 2009.

\_\_\_\_\_, 『韓國儒敎의 再照明』, 민망사, 1982.

김능근, 『儒敎의 天思想』, 승실대학교출판부, 2000.

- 민중서림편집국,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1999.
- 유교사전편찬위원회 편, 『儒教大辭典』, 박영사, 1990.
- 이광률 편, 『유가철학의 본질』, 중문출판사, 1998.
- 이성배, 『유교와 그리스도교』, 분도출판사, 2001.
- 이현수, “인격신”, 『한국가톨릭대사전』 9,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7110-7112.
- 임계유 편, 『유교는 종교인가 1』, 금장태·안유경 역, 지식과 교양, 2011.
- 전해종 외 8인, 『中國의 天下思想』, 민음사, 1988.
- 최동희, 『西學에 대한 韓國實學의 反應』,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 피터슨, 마이클, 『종교철학』, 하종호 역, 이대출판부, 1994.

### 3. 논문류

- 금장태, “유교의 天·上帝觀”, 『신관의 토착화』, 사목연구총서 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82-118.
- 김기협, 『마테오 리치의 中國觀과 補儒易佛論』,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3.
- 김성기, 『中國 古代國家에 있어서 天과 人間과의 관계 및 그 구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4.
- 김승동, “先秦時代에 諸子들에 나타난 天 思想에 관한 연구”, 『코기토』 14, 1975, 431-451.
- 김영일, 『茶山의 上帝思想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0.
- 김재영, 『儒教와 『天主實義』에 나타난 天觀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4.
- 배옥영, 『周代의 上帝意識과 天命思想』,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3.
- 서우열, 『孔子와 孟子의 天思想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8.
- 송영진, 『孟子의 天人關係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2.
- 송인창, 『先秦儒學에 있어서의 天命思想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1987.

- 안병주, “산업사회와 유교적 인간관”, 『인문과학』 5, 1976, 27-39.
- \_\_\_\_\_, 『儒敎의 民本思想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6.
- 안병철, 『先秦儒家의 民本政治思想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6.
- 유승중, 『先秦儒家의 天思想 연구: 孔子의 天觀을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6.
- 윤사순, “유교전통에서 보는 그리스도교”, 『종교신학연구』 6, 1993, 51-79.
- 이경원, “『書經』에 나타난 上帝·天觀”, 『東洋哲學研究』 16, 1996, 189-210.
- 이명숙, 『『詩經』에 나타난 福思想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84.
- 장영백, 『古代 中國人の 天觀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4.
- 조신평, 『儒敎의 天觀에 나타난 中國인의 종교심성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 석사학위논문,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4.
- 조준하, “東洋傳統思想의 宗教性 탐구: 선진유가의 天觀을 중심으로”, 『同大論叢』 18, 1988, 125-147.
- 최기복, 『儒敎와 西學의 思想的 葛藤과 相和의 理解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9.
- 최도희, “荀子の 人間觀”, 『인문과학논총』 27, 1995, 123-139.
- 出石誠彦, “天の思想”, 『世界精神史の諸問題(二)』, 東京: 理想社, 1941.

## □ Abstract □

The Study on the Personal Characteristic of T'ien(天) in *The Book of Poetry*(『詩經』) and *The Book of Documents*(『書經』)

Lee, Dae K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sonal characteristic of T'ien as found in the two books among The Five Classics of Confucian scriptures, namely *The Book of Poetry*(『詩經』) and *The Book of Documents*(『書經』). In Confucianism the absolute being is expressed as T'ien and Shing-ti(Emperor Above). In Korean 'T'ien' means 'Heaven' and 'Shing-ti' means 'God'. The characteristic of T'ien and Shing-ti in *The Book of Poetry* and *The Book of Documents* have been examined under the following seven aspects.

T'ien is the supreme God subject to reverence and rite. In Confucian scriptures T'ien is the supreme God and also is the heavenly King who commands other gods. Human attitudes toward T'ien are expressed by reverence, fear, worship.

T'ien is the creator and the source of all material being. Because it is thought that the life of Human's was derived from T'ien, it is believed that one needs to follow the law and order set by T'ien.

T'ien is a spiritual being with will and emotion. T'ien's personal characteristic is revealed in his emotion(kindness, anger, sympathy) and property(all knowing).

T'ien is an absolute being that commands with his will(T'ien-ming, will of T'ien). It is believ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 and city, appointment of a king, war, divorce are due to the T'ien-ming(will of

T'ien).

T'ien rewards good and punishes evil. T'ien and Shing-ti's power preside over nature and life. Since T'ien is a being who rewards good and punishes evil, one needs to be faithful to him.

T'ien is a being subject to prayer, petition and faith. In the *Book of Documents* there are passages where one calls to heaven for mercy and petition poems expressing sorrow.

T'ien is the source of moral values. T'ien is also a immanent and moral being in whom the goodness of human nature is rooted.

The above attributes reveal the 'personality' of T'ien. In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y the missionaries of the Jesuit Order who came to China studied Confucius scriptures and payed attention to *The Book of Poetry* and *The Book of Documents* where one can find faith in a personal God. The awareness of the idea of T'ien as found in Confucius scriptures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Jesuit's adaptionism and theory compliments confucianism. Thus, the Jesuits were able to present God in more familiar way to the Chinese through the concept of T'ien and Shing-ti as found in confucius scriptures.

\* **Key Words:** *The Book of Poetry*(『詩經』), *The Book of Documents*(『書經』), Shing-ti(Emperor Above), T'ien(The Heaven, 天), Theory of Compliment Confucianism